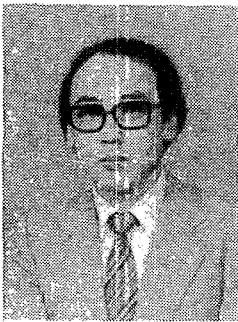


全國土를 公園化 하겠다는데...

- 또 하나의 試行錯誤를 경고한다 -

開發은 어떤 形態의 것이건 간에, 그리고 아무리 事前에 翁의 주도하
게 계획된 것이건 간에, 共有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韓國的 현실에서
는, 또한 그것이 국민 스스로가 택한 자발적인 의지가 아닌 경우에는,
더우기 行政命令에 의한 官主導의 경우에는 開發의 효과 보다는 자연
파괴와 환경오염을 더 크게 불러온다.



朴 昌 根
(社)環境教育會委員長

1. 아닌 밤중의 흥두개 「全國土의 公園化 運動」

일에는 동기와 목적이 있다.

허술한 지붕을 고치는 것은 비를 막기 위한 동기며, 강에 다리를 놓
는 것은 안전하고 편하게 강을 건너기 위한 목적에서이다.

즉, 일과 동기는 바늘과 실같이 목적이 一致하며 일은 목적을 위해,
목적은 일을 위해 습—된다 뜻이다.

따라서 비를 막기위한 것이 아닌 지붕 수리라든가, 강을 건너기 위한
것이 아닌 다리 놓기란 상상할 수도 상상해서도 안된다.

그러나 최근 일과 동기가 분명치 않고 또한 그 목적이 다른 듯한 일의
경우를 보게된다.

말하자면 엽불 보다는 잣밥에 더 목적이 쏠린듯 하달까? 일 그 자
체에 더 목적이 있는듯 하달까? 하여간 동기가 분명하지 않은 일, 목적
과는 거리가 먼 일들이 아닌 밤 중의 흥두개 식으로 튀어나오고 있다.

그리고 그 흥두개는 우연이라기에는 너무나도 기이하게 88올림픽을 우
리나라에서 치루게 되었다는 발표가 있는 후 부터 더 많이, 더 급하게
쏟아져 나왔다.

죽어가고 있는 漢江을 살리기 위한 동기라기 보다는 88올림픽에 그럴
듯하게 보이기 위한 목적같은 「한강종합개발공사」가 그렇고, 북한산

의 자연생태를 보호하기 보다는 88올림픽의 외국 관광객의 유원지 확보를 위한 목적같은 「북한산개발계획」이 그러며, 아름다운 국토경관 조성 보다는 코앞에 닥친 IBRD, IMF 총회와 88올림픽에 당장 예뻐 보이려는 이번의 「全國土의 公園化 運動이」이 그렇다.

물론, 이 모든 일의 동기와 목적이 88올림픽을 위한 것이었다고 해서 나쁠 이유도 안될 이유도 없다. 그러나 88올림픽이 국제적인 행사이기는 하나 그래도 단순한 운동경기에 불과한 보름 내외의 행사 때문에 수십억년을 흘러 온 江을, 이어져 온 山을 88올림픽에 어울리게(?), 그것도 단 몇년 사이에 이리 뜯어 고치고 저리 두들겨 맞춰 어떻게 해보이겠다는 것은 아무래도 억지이며, 그러다 보면 줄속이 따르게 되어 88올림픽이 끝난 후 성과보다 자연파괴와 오염의 손실이 더 커 두고두고 후회할 일만 남게 된다.

특히, 이번의 「全國土의 公園化 運動」의 경우는 너무 성급한 발상에 관료주의적인 계획이 加味된 흥두개로 그 잘못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全國土의 公園化 운동의 문제점

內務部가 발표한 「全國土의 公園化 運動 기본계획」이라는 1백여면의 청사진에는 生態學의 ABC는 커녕 時間과 空間의 진행성도 무시한 획일적이며 형식적이고 근시안적인 命命(?)이 나열되어 있다.

(1) 全國土의 公園化 운동의 基本目標을 “IBRD·IMF 총회·86 아시안게임·88올림픽 대비”에 두고 있다.

즉, 국제회의와 운동경기를 위해서 全國土를 公園化시키겠다는 것인 지 全國土가 公園化되어야 국제회의와 운동경기를 치를 수 있다는 것인지 목적 의식이 불분명하다.

물론,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세계적 著名人士와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세계적 운동선수들에게 “푸른江山 아름다운 꽃으로 快適한 自然景觀을 造成”해 보여주자는 데에 異議가 있을리 없겠으나 아무리 발동에 떨어진 불(?)이라고 해서 그렇게 全國土를 급히 公園化시켜야 하는 것인지… 또한 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그리고 “푸른江山 아름다운 꽃으로 쾌적한 自然景觀을 造成” 하겠다는데 IBRD와 IMF 총회는 금년이요, 86아시안게임은 來年이며, 88올림픽이라고 해도 3년 밖에 안 남았는데 그 새 무슨 재주로 푸른江山을 만들겠다는 것인지… 그리고 “아름다운 꽃으로 快適한 自然景觀을 造成” 한다는데 아름다운 꽃은 美的 분위기일 뿐 快適感과는 거리가 멀

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2) 全國土의 公園化운동을위해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위원장에는 내무부 차관보, 위원에는 내무부, 문교부, 농수산부, 건설부, 교통부, 문공부, 산림청, 철도청, 농진청, 서울시가 포함되어 있으나 정작 푸른國土, 쾌적한 環境을 위한 주무 기관인 「環境廳」은 빠져있어 全國土 公園化의 목적이 푸르름과 쾌적보다는 당장 아름답게 보이기 위한 가시적이며 형식적인 계획이라는 구설을 면하기 어렵다.

특히 部處別 사무협조에 있어서도 推進協議會에 들어가 있지 않은 「새마을운동 중앙본부」는 업무 협조 부처로 들어가면서도 「環境廳」은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술은 의사의 손에 맡겨야지 비전문가(?)가 잘못 칼을 휘두르면 결과는 더 악화된다.

(3) 주요 사업별 추진계획을 보면 1차적으로 “路邊 꽃길 造成”이라는 계획이 나타난다. 즉 “전국 모든 도로변과 주변 유흥지, 沿邊山地와 마을 진입로에 꽃길과 화단을 대대적으로 조성”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꽃의 종류로는 4계절 순환 開花할 수 있고 지역에 적합한 花種을 선정하되 “코스모스 꽃길을 중점 조성”하라는 지시인데, 말하자면 88올림픽이 가을에 열리니 가을에 開花하는 코스모스 꽃 천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가관인 것은 “꽃길 造成例示”를 들어 1m폭으로 1~2 km에 코스모스꽃을 심고 다음에 꽃동산, 그리고 계절별 순환꽃길을 300~500 m 조성하고 다시 꽃동산을 만들고 그리고 1~2km의 코스모스 꽃길을 이어가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말하자면 꽃을 심는데도 行政命令이면 만사 형통인지 첫째 무엇을 심고 둘째 무엇을 심고 셋째 무엇을 심으라는 식이니 웃기는 얘기다.

꽃길이 필요하면 아무 꽃으로라도 장식된 꽃길을 만들면 된다. 물론 그곳에서 잘 살 수 있는 꽃이면 되는데 애써 먼저 무엇을 심고 다음에 무엇을 심으라는 식의 관료주의적인 행정 명령은 이제 지양되어야 하지 않을까?

당국자는 例示일 뿐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아래로 내려가 조성되는 과정에서는 꼭 그렇게 하지 않으면 큰일이라도 나는 줄 알고 例示와 똑같이 하려드는게 상례임을 알아야 한다.

(4) 全國土 公園化에서는 “市道花 동산 造成”을 추진하고 있다. 즉 “市道間 경계지역에 대규모 市道花 동산을 造成”하게끔 되어있는데 市道別 指定花는 다만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해야 할 뿐 이를 行政命令으로 식수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가 아닐 수 없다.



특히 “ 화단의 꽃만 보고도 地域特性과 郷土美가 나타나도록 造成 ” 하라고 했는데 서울의 指定花인 개나리를 부산에서는 심지어 말라는 것인지 부산의 개나리는 개나리가 아니어야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개나리 동산이 造成된 곳은 서울이라고 불러야 한다는 것인지...

그런 발상이라면 똑같은 꽃으로 指定된 市道別 指定花의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즉, 서울과 경기도의 개나리, 부산과 전남의 동백, 인천과 경남의 장미, 전북과 경북의 백일홍 등

아니 市道別 指定花 이외에는 꽃이 아니란 말인가? 아니면 指定花 이외에는 꽃이 없단 말인가? 설마 指定花 이외의 꽃 이름을 몰라서 그러는 것은 아닐텐데...

(5) 國土空間綠化 계획에서는 “ 올림픽 경기장의 진입로와 주변에는 大型樹木을 植栽 ” 하도록 해놓고 있다.

그래서 경기도와 충청도, 강원도에서 소나무, 은행나무 등의 老巨樹를 뽑아 옮겨 심고 있는데 生存率은 몇 %인가?

아니 올림픽때 까지만 살아주면 된다는 계산은 아닐런지?

올림픽 경기장 조건에 老巨樹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이런 무리하고 무지한 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

그리고 “ 나라꽃 무궁화는 群植을 피하고 상징적인 곳에 알맞게 심도록 ” 권유하고 있으나 이미 극성스러운(?) 애국자들에 의해 고속도로변과 시골의 국민학교 마당은 무궁화 群植으로 무궁화 동산이 되어 있다. 그렇다면...

(6) 都市空間綠化 중에는 예의 그 화분 설치와 화단 조성이 동원되고 있다.

최근 都心再開發 사업의 일환으로 등장한 화분과 화단은 그야말로 눈 감고 아웅하는 格的 都市綠化 사업으로 정착(?)되고 있는데... 이런 전 근대적이며 피상적인 황포는 언제 끝낼 것인지 한심할 뿐이다.

듣기로는 몇몇 사람들이 영국의 정원을 돌아보고, 「암스텔담」의 강변을 걸어 보고, 「쥬리히」의 창을 구경하고, 「교토」의 거리를 구경하고 화분과 화단이 아름다웠다고 우리네 거리에도, 창가에도, 옥상에도, 화분과 화단을 꾸미라고 했다지만...

화분이 어울리는 창이 따로있고, 화단이 살 수 있는 거리가 따로 있지 아무데나 화분을 놓고, 아무 곳이나 화단을 꾸몄다고 都市가 綠化될소나?

특히 걸작은 “ 건물과 담장에는 담쟁이 덩굴이 올리기 ” 를 특별히 권유하고 있는데... 담쟁이가 건물과 담장에 무엇이 되는지? 아니 가능한



지? 알고나 있는지….

건물과 담장에 담쟁이 덩굴이 덮혀 있다고 해서 「로마」와 같이, 「하이델베르크」와 같이, 「비엔나」와 같이 古風스러운, 유서깊은 都市가 될것으로 착각해서는 안된다.

(7) 주요 도로와 철도변을 꽃과 나무로 綠化해 “可視圈內的 都市 및 農村美觀不良地域을 집중 정비” 하라고 하는데 부자 나라 미국에도 몇의 나라 프랑스에도 “美觀不良地域”은 있다.

따라서 그런 꽃과 나무의 울타리 보다는 헌법에 환경권이 明文化 되어 있는 나라답게 방음벽을 설치해 도로변과 철도변 주민의 정신건강을 지켜주어야 할 것이다.

(8) 「全國土의 公園化運動」과정에 경연대회와 比較評價를 실시해 賞을 주고 賞金(大賞 分野別 各 1 阡萬원, 장려상 分野別 各 5 百萬원)을 주겠다고 하는데, 그러다가 초창기의 자연보호운동의 꼴이 되어나 않을런지?

즉, 쓰레기줍기 경연대회에 1 등하려고 집에서 쓰레기를 베낭에 담아 오고 가게에서 빈병을 사다가 깨뜨려 내놓기 등으로 오히려 자원을 낭비하고 쓰레기를 더욱 量產했던 경우.

3. 정말 全國土를 綠化해 쾌적한 환경을 찾아야 겠다면…

어떤 경우에서건 이번의 「全國土의 公園化運動」계획은 白紙化 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말, 全國土를 綠化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야 겠다면 다음과 같이 계획을 바꿔야 한다.

(1) 全國土의 綠化 사업(운동이 아닌)은 環境廳이 주관하여 모든 部處가 협력하는 방향으로 해야한다.

(2) 아니면, 새롭게 內務部 주관으로 公園化 운동을 추진하기 보다는 기왕에 全國土의 綠化사업에 힘쓰고 있는 <새마을 운동> <자연보호운동>을 활성화 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

(3) 사업 시기를 88 올림픽에 맞추지 말고 無期限的으로 추진해야 한다.

(4) 꽃길, 市道花 동산등으로 규격화 하지 말고 주민 스스로가 쉽게 구할 수 있고 좋아하는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도록 자율화시켜야 한다.

(5) 86 과 88 경기장 주변엔 가급적으로 속성수나 유실수를 심되 애써 다른 곳의 大木이나 老巨樹를 옮겨 심는 과시적이며 형식적인 바보 짓은 하지 말아야 한다.



4. 모든 汎國民事業 (운동)은 民이 主導해야지 官이 主導해서는 안된다.

일단 綠化사업은 官이 솔선 주도하되 1년 이내에 손을 떼어야 한다. 즉 官主導로 밀어 나가지 말라는 얘기다. 그렇지 않고는 綠化사업은 실패하기 때문이다.

솔직히 얘기해 국민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을, 官主導로 해서 잘 된 일은 별로 없다.

오히려 依他心만 불러왔고 형식에만 치우치게 했다. 즉, 쓰레기만 줍으면 다 된 일인줄 아는 「자연보호운동」이 그렇고, 공해 대책은 「환경청」이 알아서 해줄 것이라고 믿는 생각이 그렇다.

결국 「官主導」는 「民外面」만 불러 왔다.

그 좋은 예를 소개한다.

年前, 어느 高速道路변의 논이 농약관리의 잘못으로 까맣게 타 죽은 적이 있었다.

그런데 이 흉직한 물골은 일주일이 지나고 보름이 지나도 처리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왜? 한 해 농사를 망친 논 임자의 失意 때문인가? 아니면 원인규명 조사 때문인가?

그러나 알고 보니 이도저도 아닌 어처구니 없는 依他心 때문이었다.

“내가 그걸 왜 치웁니까? 힘들게...”

꿀 보기 싫으면 그들 (面이나 郡을 지칭하는 듯)이 와서 치우겠죠! 심으라는 벼 심고, 주라는 비료 주고, 뿌리라는 농약을 뿌려 그렇게 된걸...” 말하자면 官에서 지도한 결과니 처리도 官이 알아서 할 것이라는 배짱이었다. 특히 高速道路邊이니 높은 양반들이 지나다 그 꿀을 보면 혼날 사람은 面과 郡이지 자신은 아니며 그 혼한(?) 「새마을사업」도 있는데 왜 힘들여 혼자 죽은 논을 정리하겠느냐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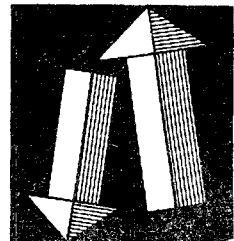
5. 여기는 단 하나뿐인 우리의 「삶의터전」

하여간 모든 문제는 「너무 크게」 「너무 빨리」 「너무 성공」 하려고 애쓰는데 문제가 따른다.

이번에 全國土 公團化 운동의 경우도 문제는 국제 행사를 너무 국제적으로 너무 선진국형으로 치루려고 하는 과욕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물론, 돈만 많으면 무슨 짓인들 못하겠고 시간만 많으면 무슨 짓인들 못하겠느냐만, 솔직히 얘기해 그럴 돈도 시간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버릴 자연도, 환경도 없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우리네 형편에 맞게, 없으면 없는 데로, 서툰면 서툰 데로 모든 행사는



치뤄져야 한다.

애써 「크게」 「화려하게」 보였다고 해서 우리를 富國으로, 先進國으로 평가하지는 않을 것인데... 가랑이를 찢겨 가면서 황새의 흉내를 낼 필요는 없다. 뱀새면 뱀새답게 살금살금 걸어서 가자.

올림픽은 세계를 돌아 다니면서 치루는 행사지만 우리의 조국, 이山河는 여기 이곳에 영원히 있어야 할 하나뿐인 우리의 「삶의 터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

의식개혁 9대실천요강

정직 모든 생활은 정직에 원칙을 두고 새시대의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여 불신품조를 과감히 추방한다.

질서 모든 생활의 기초를 질서에 두고 이를 체질화하기 위해 국민적 역량을 최대한 경주한다.

창조 왜곡된 미풍양속의 본질을 되찾아 민족정기와 전통을 창조적으로 계승·발전시킨다.

책임 모든 공직자는 청렴의무를 준수하고 무사안일등 고질적인 폐습에서 탈피, 스스로를 철저히 책임지는 풍토를 확립한다.

본분 각자가 자기본분에 충실하고 부여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분수 생활주변의 고질화된 각종 낭비요소를 과감히 제거하여 분수에 맞는 생활자세를 정립한다.

주인의식 민주시민으로서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사회의 부정·비리와 무질서에 대한 건전한 고발정신을 함양한다.

국민화합 지나친 이기주의와 뿌리깊은 파벌, 연고의식을 철저히 불식함으로써 국민화합의 기반을 확충한다.

가정교육 모든 교육은 가정교육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깊이 인식, 여성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한다.

♣ 환경속에 사는 우리
보전하고 보호받자. ♣